

28장 - 복의 근원 강림하사

-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 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 (2)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 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 (3) 주의 귀한 은혜받고 일생 빛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인을 치소서 아 멘

86장 -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 (1)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 (2)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 (3)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맘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 (4)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 후렴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1월 18일(토) 기도 담당 : 박배웅 집사

2020년 1월 17일(금)

이른아침예배

인도 : 엄재광 목사

예배를 여는말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송	28장
기도	정준섭 집사
성경봉독	학개 1장 2~8절
찬양	새벽찬양대
설교	『판벽한 집』 엄재광 목사
기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찬송	86장
축도	설교자

☞ 오늘의 말씀 < 학개 1장 2~8절 >

- 2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와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 3 여호와와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 4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 5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 6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삿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 7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 8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0년 1월 17일(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주의 백성들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시고 복된 새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시17:8).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찬양하며 시작하오니 주님 저희의 삶을 받아 주옵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

주의 전을 지으며 이기적인 마음을 감춘 채, 게으르게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혹이나 저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내면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에도 주님께 더욱 진실되이 서게 하시고, 저희의 영적 우선순위가 어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맘과 정성으로 주님을 섬김이 늘 저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평생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새문안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새문안교회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우시사, 성도들과 광화문 일대 직장인들의 영적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열방과 세계선교를 위해 중보하는 제사장적 공간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에 본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향기와 선하심을 세상에 전하는 거룩한 도구되게 하옵소서. 135주년 이전에 헌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온 교회의 열정을 속히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만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담임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사 허락하신 목회비전을 주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이루도록 도와주옵시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모든 이들 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충만히 베풀어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안보, 교육 전반을 주님 친히 만지시사, 오직 주께만 속한 “거룩한 나라”, 오직 주님만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